

독해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주세요

1. 사용 도구들

- 검은 슬러시 (/): 내용 분리를 하기 위
- 함검은 밑줄: 정보 흐름을 확인함
- 간 밑줄: 함축적인 문장
- 빨간 P: 문제점 혹은 한계점
- 빨간 S: 해결책 혹은 대안점
- 원 숫자(①,② 등등): 나열 및 순서하
- 늘색 형광펜: 개념 구분을 표시

2. 오른쪽 필기 내용 사용법

- 글을 정리하면서 자주자오는 논리적 내용들을 적용했습니다.
- 정리내용에서 모르던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
-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포스트잇으로 추가

3. 지문해설에서 확인

- 지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 혹시 읽고 난 이후에 지문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형광펜 치신 다음에,
- 해당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꼭!! 위치 확인해주세요.
- 좀 더 시간이 있으시면, 왜 못 읽었는지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빠른정답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2	①	3
3	③	2
4	③	2
5	④	2
6	④	2
7	②	2
8	②	3

10	③	2
11	⑤	2
12	④	3

14	①	2
15	②	2
16	④	2
17	②	3

[6월 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①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②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③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④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⑤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①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②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③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④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독서,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독서’

[지문해설]

이 글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독서를 위해서 독자는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며, 선별한 내용을 여러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읽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새로 얻은 지식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이렇게 구성한 의미를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재구성한다. 이때 기록은 망각을 방지하고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며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주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과정과 의미 구성

독서

개인적 관용

사회적 관용

두려움 기록

1.

{정답해설}

독서 방법 추론

읽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1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서적 반응에 대한 내용이나 이를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오답피하기}

- ① 1문단의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히 읽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1문단의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 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1문단의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 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보 기>—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 이익, 『서독승면론』 -

{정답해설}

독서에 대한 가치관 추론

<보기>에서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 는 것은 학문을 할 때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맥이 끊어질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② <보기>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자세와 연결될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 은 벗끼리 함께 모여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마음속의 생각’ 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 에 대해 ‘강론’ 하고 ‘기록’ 하는 것은 학문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 은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벗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는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보여 준다.

3.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독서의 특성 추론

{정답해설}

학생은 글에 나타난 독서의 모습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학생의 반응에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학생의 반응에 모범적인 독서 태도의 발견이나 반성과 관련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학생의 반응을 통해 학생이 알게 된 내용은 짐작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학생의 추가적인 독서 계획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학생의 반응에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6월 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흄이 지적했듯이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턴의 과정 이론이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교차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 하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 과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나)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재이론(災異論)이다. 한대(漢代)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①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과학적 세계관
 (Want) 인과-물리적 작용관계
 (But) 인과는 안 보임
 (핵심) 새턴의 과정 이론

과정 이론이란,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도 움직인다. 야구공의 궤적 = 공의 움직임
 인과적 과정

예시의 차이

	바나나	바나나의 그림자
이론	①	③
교차	②	④
표지	표지 유무	표지 생성
인과	○	X

동중서
 천인감응 + 천인감응론
 재이론의 체계화
 ① 풍수지리 ② 음양의 기 변화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
 인간사 → 재이 [일대일 대응]
 정치논의의 힘이 명분 제공
 '예언화 경향' [신하 탄압] 재이 → 인간사

이후 재이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응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그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

[송나라 주희]
 재이 力 일월식 (이치적)
 ↓
 재이 自然관상
 전반적 대응설 [대리관행]
 재이론 폐기 [근거]

인문, (가) 새먼의 과정 이론 / (나) 재이론 [지문해설]

(가)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한 새먼의 과정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먼의 과정 이론에서는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보고, 두 과정의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가)는 이러한 새먼의 과정 이론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과정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주제} 새먼의 과정 이론의 개념과 한계

(나)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인 재이론이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한대의 동중서는 재이가 군주의 권력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중서 이후, 인간사와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이해하는 예언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송대의 주희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켰다.

{주제}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재이론의 시대에 따른 변용 양상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가)는 새먼의 과정 이론이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고 한 시도라고 말하면서 새먼의 과정 이론에서 말하는 인과적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 규범과 형벌 사이의 인과 관계를 예로 언급하면서 과정 이론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과정 이론의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 (가)의 1문단에서는 근대 이후의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전과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여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를 보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새먼의 과정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나)의 1문단에서는 동중서의 재이론이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재이를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로 보았다는 동중서의 재이론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인과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로서 재이론을 제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대의 동중서의 재이론, 동중서 이후의 예언화 경향, 송대의 주희의 재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한 새먼의 과정 이론을, (나)에서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재이론을 다루어 인과에 대한 동서양의 이론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5.

{정답해설}

세부 내용 파악

(나)의 1문단에서 현대의 재이론에서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경고를 내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재이론에서의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가)의 1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가)의 2문단에서 인과적 과정은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를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4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해명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서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인과 관계 그 자체는 흠이 지적하였듯이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고 언급하였다.

⑤ (나)의 3문단에서 천문학의 발달로 일월식이 예측 가능하게 되면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송대에 있었음을 언급하고, 주희가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송대에는 일월식을 기이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6.

{정답해설}

구체적 사례 적용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1이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내는 과정 2와 교차하면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 없어진 채로 b 지점까지 이동한다. 스크린상의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이 변한 것은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에 따른 것으로,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한 결과는 아니다. 2문단에서 교차하는 두 과정이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날 수 없는 과정 2와 과정 3은 교차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과정 이론에서는 과정을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A]에서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1과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② 과정 이론에서는 두 과정이 교차하여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말한다. [A]에서는 과정 1과 과정 2가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교차하였고, 이 교차로 인해 변화된 바나나의 물리적 속성이 b 지점까지 전달된다. 그러므로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③ [A]에서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b 지점까지 줄곧 전달된다. 그러므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그러나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과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교차하여 도입된 표지는 그 지점을 지나가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⑤ 과정 3과 과정 4가 교차하면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티로폼이 부착된 스크린의 한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된다. 그러나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즉 표지가 도입된 이후의 지점에서는 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7.

{정답해설}

생략된 내용 추론

동중서의 재이론에서는 군주의 실정이 재이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즉 인간사를 원인으로, 재이를 결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개별적 대응 방식은 ㉠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가 생겨났다. 결국 ㉠은 인간사를 원인이 아닌 결과로, 재이를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보고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은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보는 것이지 과거의 인간사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한 것은 아니다. ③ ㉡은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재이가 일어난다고 본다. ㉡은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 대응을 강조하고 정치와 재이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이다. ④ ㉡이 누적된 실정으로 인해 재이가 일어난다고 본 것은 맞다. 그러나 ㉡은 재이를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⑤ ㉡은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으로서, 군주의 누적된 실정이 재이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이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재이가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8.

<보 기>

- ㉠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 ㉡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 ㉢ 덕이 잘 닦인 치세에서는 재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으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 하류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실정을 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청렴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답해설}

다른 견해와의 비교

㉔에서는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였다.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고 여기는 동중서의 재이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흠은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㉔에서는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라고 말하고 있다. 과정 이론은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으로 보고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의 도입과 전달로 인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흠의 문제 제기와 ㉔로부터 과정 이론이 과학적으로 인과 개념을 규명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㉔에서는 덕이 잘 닦인 치세에는 재이가 없고 난세에는 변고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였다. 이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하늘이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는 동중서의 생각,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변칙적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주희의 생각과 상통한다.

④ ㉔는 덕이 잘 닦이지 못한 난세에 재이와 세상의 변고가 일어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의 교차를 통해 인과를 설명하는 과정 이론을 통해서도 ㉔를 설명할 수 없다.

⑤ ㉔에서는 지방관의 실정이 원인이 되어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새면은 표지가 도입된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이를 인과적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새면은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지방관의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6월 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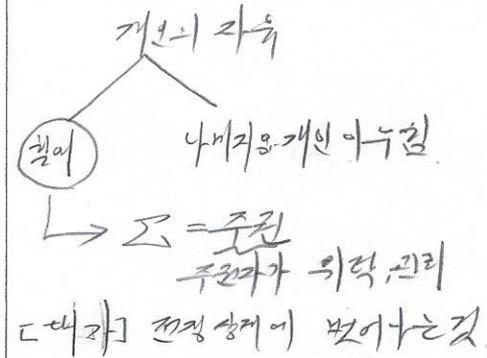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율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값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 '베카리아의 형벌론' [지문해설]

이 글은 형벌에 대한 체사레 베카리아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베카리아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로 인간을 전제하고,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유 일부를 양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합의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며, 형벌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사람들의 법 위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며,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므로 과도한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 범죄 예방에 더 큰 효과를 지니며, 개인이 양도한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 제도에 반대했다. 이처럼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베카리아는 휴머니스트 · 공리주의자 · 사회 계약론자 · 일반 예방주의 형법학의 토대를 세운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베카리아의 형벌에 대한 주장과 근거



목적: 범죄의 억제

수단: (범죄자가) 벌을 얻은 이득
공익이 없게 되는 손실
✓ (조용이) 형벌이 가하는 손해.
(베카리아)

(∴ 감각) 무리권

강도: (지속)

↓
가려 Maximum
: 생명에 대한 것
→ 양도할 수 없음

{정답해설}

세부 내용 파악

1문단을 통해, 사람은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양도하며, 이렇게 개개인의 국민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주권을 주권자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자신의 자유를 양도한 개인들의 행복, 즉 전체 복리를 위해 주권 관리의 일환으로 법 위반자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주권자는 개개인의 국민이 아니라 개개인의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1문단을 통해, 개인이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하였다는 것과, 법이 사회의 형성과 지속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할애하여 공동체를 구성한 합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형성과 지속 조건으로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가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했다는 것과,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사람을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라고 전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을 통해,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진다는 것과,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가 처음에는 크더라도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1문단을 통해, 주권은 개개인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과 같다는 것과, 형벌은 주권자가 주권을 관리하기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한 것으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 즉 주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정답해설}

세부 내용 파악

㉠은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서의 형벌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고 하였다. 지키려는 공익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형벌의 범죄에 대한 방어 효과가 달성되므로, 형벌이 높게 설정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형벌은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을 통해, 범죄와 형벌 사이의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서 형벌이 설정한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것, 즉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아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문단을 통해 형벌의 목적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손익 관계에 따라 그 달성이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 달성에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정답해설}

생략된 내용 추론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가 양도의 범위, 즉 할애된 자유의 총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전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가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과,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카리아의 입장은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 즉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3문단에서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자로도 평가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문단에 따르면,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라는 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따라서 형벌은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베카리아가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사형 폐지에 대한 그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보다 다른 형벌이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본 것이지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진다는 것과,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사형이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된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이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또한 3문단을 통해,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베카리아의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베카리아는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지 않았으며 무기 징역이 사형보다 더 큰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6월 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증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증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증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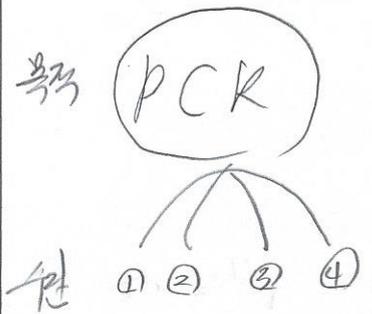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증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P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증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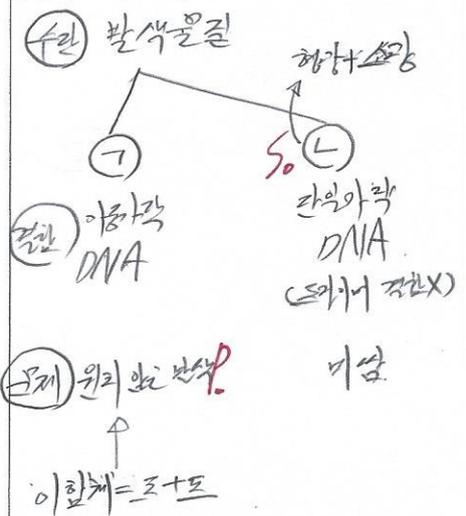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PCR 과정]

- ① "열"
② "프라이머 DNA"
③ "이중가닥 DNA"
→ 복제 한 사이클
- 더 이상 증폭 X
⇒ PCR 종료

[실시간 PCR]



- (발색) 결합시 분해시
- ① 발색도 ∝ 증폭된 표적 DNA 양
- ② 사이클은 표적 DNA 양에 따라 달라짐
- ③ 발색도 변화 = 연속된 선 그래프
- ④ 사이클 = Ct
⇒ 수식에 따른 계량 구분

과학, ‘전통적 PCR와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

[지문해설]

이 글은 유전자 복제, 감염병 진단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CR에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며 PCR 과정은 증폭의 바탕이 되는 주형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두 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기는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룬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실시간 PCR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형광 표식 탐침은 단일 가닥이 된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실시간 PCR에서는 발색도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시료의 농도를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주제} 각종 진단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통적 PCR와 실시간 PCR의 원리

14.

{정답해설}

생략된 내용 추론

1문단에 따르면, 주형 DNA는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이고,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이다. 따라서 표적 DNA에는 프라이머와 동일한 염기 서열이 있으므로, 주형 DNA에도 프라이머와 염기 서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2문단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므로 처음의 양에서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실시간 PCR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의 농도를 PCR 과정 중에는 알 수 없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한다. 전통적인 PCR는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며, 이러한 가열 과정은 실시간 PCR에도 적용이 된다.
- ⑤ 실시간 PCR도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프라이머와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하다.

15.

{정답해설}

세부 내용 파악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이와 달리 ㉡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이 되면 표적 DNA와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이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하게 된다.

{오답피하기}

- ①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며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 가닥의 이합체에도 결합한다. 그러나 ㉠이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된다. 그러므로 한 사이클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끝날 때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⑤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지만, ㉡은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었을 때 표적 DNA에 결합한다.

16.

{정답해설}

대안, 방안에 대한 적절성 탐구

1문단에 따르면, PCR 과정에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DNA이므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프라이머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모르면 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답피하기}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사이클을 충분히 수행하면 표적 DNA의 양이 증폭된다. 그러므로 시료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는 DNA 증폭 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킨다. 따라서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에는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종료한다. 실시간으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에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클을 수행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염 여부를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문학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주세요**

1. 지문해설에서 확인

해당 문학 개념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 확인하시고 문학개념어들을 한 번씩 확인하시기

2. 문학활동 확인

해당 문학활동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문학 활동 외에 문제풀이에 대해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학 개념어를 통해 얻는 효과에 밑줄 그어주세요.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입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맞이 안되는 선지)

선지 개념들의 유무를 (가) 시를 읽고 표시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문학 개념어	X	O ^{갈매기}	O	O	X
효과	-	O	O	O	-

↓
삼아줘

[6월 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편 바다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각 선지에서 핵심적인 문학 개념어를 적어주세요.

- ①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
- ② 자연물이 빗림
- ③ 색채어
- ④ 하강의 이미지
- ⑤ 표면 청자

개념어 2개

효과 2개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냇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선지 개념들의 유무를 (나) 시를 읽고 표시해주세요.

 (Handwritten notes: ②는 자연물이 아님. ④는 인공물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학 개념어	○	X	X	○	X
효과	X	-	-	○	-

(Handwritten note: 시 바꾸고 싶은 것)

{정답해설}**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에서는 ‘서른 나문 해’가 ‘꽃 이파리처럼’ 무너져 발 아래 깔렸다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나’가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쓸모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는 하강적 이미지의 ‘꽃 이파리’와 ‘똥덩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파하기}

① (나)에서 ‘무쇠 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② (가)에서는 ‘섬’으로 가는 화자의 움직임에 ‘갈매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비취빛 하늘’, ‘눈빛 파도’처럼 색채어를 활용하여 ‘섬’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독백적 어조’로 밝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학 개념어를 통해 얻는 효과에 밑줄 그어주세요.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선지 개념들의 유무를 (가) 시를 읽고 표시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문학 개념어	○	×	×	○	○
효과	×	-	-	×	○

자연물의 속성 ≠ 자연물.
↳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찾아야 함

[6월 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평사의 나그네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有客清平寺
 春山任意遊
 鳥啼孤塔靜
 花落小溪流
 佳菜知時秀
 香菌過雨柔
 行吟入仙洞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각 선지에서 핵심적인 문학 개념어를 적어주세요.

- ① 자연물의 속성
- ② 설의적 표현
- ③ 원경에서 근경 (선녀 가도)
- ④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기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다니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홀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은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분.

최 행수 쑥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닭찜 계찜 올려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 수졸전원: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선지 개념들의 유무를 (나) 시를 읽고 표시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문학 개념어	X	O	X	X	O
효과	-	O	-	-	O

{정답해설}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가)에서는 ‘봄 산’이라는 시어에서 계절이 드러나고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 등을 통해 봄에 해당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에 나타난 ‘살구꽃’은 봄에 피는 꽃이므로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로 볼 수 있으며, ‘살구꽃 겨 쌓이니’에서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좋은 나물’이 ‘때 알아 돌아나’는 자연물의 속성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교훈적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는 자연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으나 그 속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연물을 통한 교훈적 의미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 변화를 드러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나그네’라는 시어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지만 내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나)에서는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문학 개념어를 통해 얻는 효과에 밑줄 그어주세요.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쪼쪼 울리던 옛날과 '달갈귀신이 윙윙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9월 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어지지 않는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테 열리어 Ning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쪼쪼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엮기었다고//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들뻗들한 달갈귀신이 윙윙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지손: 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
- * 뒷밥: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각 선지에서 핵심적인 문학 개념어를 적어주세요.

①

②

[오노
포스]

③

④

⑤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진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A]

[B]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선지 개념들의 유무를 (가) 시를 읽고 표시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문학 개념어	○	○	○	○	○
효과	○	○	○	○	○

→ 악비 서랍은 다름

선지 개념들의 유무를 (나) 시를 읽고 표시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문학 개념어	○	○	○	○	○
효과	○	○	○	○	X

→ 리아브 악보 안그림

30.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는 ‘지금도’ 이후에 제시된 ‘마을의 풍설’을 통해 ‘동네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종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이제’ 뒤에 ‘악보’가 사라진 오늘날의 ‘시집’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시’가 창작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 개념어를 통해 얻는 효과에 밑줄 그어주세요.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각 선지에서 핵심적인 문학 개념어를 적어주세요.

- ①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소재
- ②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
- ③ 발음이 비슷한 시어
- ④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
- ⑤ 대구

[9월 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중략)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입이 날 쫓소나

[A]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최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곱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B]

(중략)

- 허난설헌, 「규원가」 -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입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쭈 하나니

[C]

- 작자 미상 -

선지 개념들의 유무를 [A]를 읽고 표시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문학 개념어	○	○	○	○	○
효과	○	○	○	○	○

선지 개념들의 유무를 [B]를 읽고 표시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문학 개념어	○	○	○	○	○
효과	○	○	○	X	○

↳ 문헌

선지 개념들의 유무를 [C]를 읽고 표시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문학 개념어	○	○	○	○	○
효과	○	○	○	○	○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봄바람’, ‘가을 물’, [B]에서는 ‘겨울 밤’, ‘여름날’ 등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A]는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상황에서 ‘설빈화안’ 이던 화자의 모습이 ‘면목가증’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화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한스러운 상황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